



윤석열의 '쉬운 수능' 발언과 교육부의 일제고사 추진

각급(초·중·고·대) 교육 서열화 강화 위한 밀밥 갈기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약 150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수능 관련 대책들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은 수능의 이른바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제)을 겨냥해,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석열은 수능의 킬러 문항이 사교육 업계와 교육 당국 간의 "이권 카르텔"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여당과 보수 언론들도 일제히 사교육 업계를 비난하고 나섰다. 연봉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일타 강사'들을 비난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그리고 전직 수능 출제자가 문제집을 만들어 파는 일이 폭로됐다.

사실 어지간한 교사나 전문가들도 쉽게 풀지 못하는 킬러 문항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다. 수백만 원씩 받고 킬러 문항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명문대와 의대 진학을 돕는다는 입시 학원의 광고가 있을 정도니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발언은 대다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서 당연히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제 몇 개를 삭제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사교육비와 격화되는 입시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킬러 문항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게 '물수능'이 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출제 기법을 고도화"해 변별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하게 말해, '아주 어려운' 문제 한 두 개 대신 '어려운' 문제 개수를 크게 늘



릴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킬러 문항을 위한 사교육 대신에 어려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사교육이 유행할 것이 뻔하다.

사교육비 감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입시 제도를 이리저리 바꾸는 것으로는 입시 경쟁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거의 없었다. EBS 교재와 수능의 연계율을 높이고, 수능 영어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입시 제도 변경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한국의 입시 경쟁이 명문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누군가는 반드시 떨어져야 하는) 상대평가 경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능을 쉽게 내면 내신과 수시의 비중이 늘어나는 식으로,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튀어나오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겠다"고 밝혔다. 2025년에 이들 학교를 폐지하기로 한 계획을 뒤엎은 것이다.

이주호는 지난해 10월 인사청문회에서 자사고 정책이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주호 본인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사고 늘리기 정책의 주역이었다.

또, 정부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전국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과거 일제고사는 학교 간 경쟁을 과열시켜 학교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게 만들었고, 학생 간 경쟁을 심화시켜 사교육을 조장한 바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라는 것은 '명문' 대학에 진학할 '정예'와 평범한 노동계급에 속하게 될 아이들을 더 어린 나이에 가르자는 것인 듯하다. 고교 서열화를 더욱 강화하고, 초·중학생 때부터 줄 세우기 시험을 강요하니 말이다.

이런 줄 세우기가 부유층 자녀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대학이 촘촘하게 서열화되고, 조금이라도 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해야만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입시 경쟁은 완화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고교 서열화 정책과 일제고사 추진에 반대할 뿐 아니라, 입시 폐지와 대학 평준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좌파적 대중 운동으로 커져야 치열한 입시 경쟁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

'일타 강사'들의 '돈 자랑'이 폭발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의 산물이지 입시 경쟁의 원인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타 강사'들을 비난하고 수능 난이도를 문제 삼는 것은 데마고기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윤석열의 발언 직후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강화 대책에서 드러난다.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해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

〈노동자 연대〉 정규호를 구입하세요.

일본 핵 오염수 방류 관련 최무영 교수 인터뷰, 신자유주의적 인플레이션 대책의 실패, 그리스 시리자 몰락의 교훈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wspaper.org



홍준표·오세훈 등 우파의 성소수자 혐오 반대한다

퀴어퍼레이드를 지지하자

퀴어퍼레이드를 둘러싸고 우파 정치인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6월 17일 대구에서 열린 퀴어퍼레이드를 두고 대구시장 홍준표는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행사를 무리하게 막아서 경찰과 충돌까지 빚었다.

홍준표는 행사 이전부터 퀴어퍼레이드를 공공연히 비난하며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겼다.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퀴어 축제는 안 했으면 한다.”

이는 교활한 갈라치기이다. 그러나 홍준표가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의 권익은 보장해 왔던가? 홍준표가 그간 저질러 온 수많은 악행들(공공의료 파괴, 복지 삭감 등) 모두 노동계급 등 서민(성소수자 포함)의 삶을 악화시키는 일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성소수자와 노동계급의 사람들이 홍준표에게 “혐오감”을 느낀다.

홍준표는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옹호한 것 때문에 최근 기독교 우파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그는 성소수자 혐오를 보여 줘서 기독교 우파 측의 반발을 무마하고 우파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싶었던 듯하다.

7월 1일 개최 예정인 서울 퀴어퍼레이드는 서울시장 오세훈의 방해로 서울광장에서 밀려나 을지로에서 개최된다. 서울 퀴어퍼레이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2015년부터 매해 서울광장에서 열렸었다.

지난해 오세훈은 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을 조건부로 허락했다가 보수 기독교 세력에게서 “박원순 때와 뭐

가 달라졌냐”며 지탄받은 바 있다. 올해 오세훈은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날짜에 광장 사용을 신청했게 뻔한 기독교 단체에 서울광장을 내줬고,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퀴어퍼레이드는 성소수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대표적 성소수자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그래서 더욱 우파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에 성소수자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서울광장 사용 불허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성소수자 단체 소속 대학생 120여 명이 신촌 거리로 나와 서울시를 규탄하는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보수층 결집

최근 국민의힘이 다수인 지방의회들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 시도가 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자체 7곳 중 4곳이 그런 곳이다.

기독교 우파는 “조례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조장”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벌여 왔고, 국민의힘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를 돕고 있다.

2017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가 우파 결집을 위한 쟁점 중 하나로 동성애 문제를 들고 나온 뒤부터, 공식 정치 무대에서 우파 정치인들에게 ‘동성애 반대’는 하나의 표지가 됐다.

우파 정치인들은 ‘동성애 반대’를 내세워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대중을 분열시키려 한다.

한편 민주당 정치인들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체로 침묵·회피해 왔고 일부는



혐오에 동조했다. 민주당은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면서도 보수층을 의식해 차별을 개선하는 구체적 정책을 내놓기는 꺼렸다. 의회 다수파임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사코 회피하고 있다.

물론 우파의 공격에도 성소수자에 우호적인 여론은 증가해 왔다. 올해 5월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동성애를 ‘사랑의 한 형태’라고 답한 사람이 51퍼센트, 동성혼 찬성이 40퍼센트였다. 이런 비율은 증가 추세다. 젊은 층에서는 우호적 여론이 상당히 높는데,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늘어난 영향일 것이다.

그럼에도 우파 정치인들이 부추기는

성소수자 혐오는 성소수자 전반과, 특히 취약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성취하는 데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우파의 혐오·차별에 맞서 올해 서울 퀴어퍼레이드가 만만치 않게 세를 유지하며 개최되길 바란다.

더불어 홍준표, 오세훈 등 우파 정치인들이 단지 성소수자에게만 적은 아니다. 우파에 효과적으로 맞서고 차별을 개선하려면 성소수자 차별 반대 운동에 노동계급 사람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게 필요하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 **12강 중국 트로츠키주의의 역사**

일시 | 6월 28일(수) 오후 8시
발제 | 이정규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참가신청 bit.ly/0628-meeting

▶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